

중독연계전공 학생들의 상담실습에 관한 질적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the Counseling Practice of Students with Majoring in Addiction

박종환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Jong-Hwan Park(pjh1738@naver.com)

요약

본 연구는 중독기관에서의 상담실습을 마친 중독을 연계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실습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의 의미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중독연계 학생의 효율적인 상담현장실습의 지도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두 곳의 중독치료 기관에 상담실습을 의뢰하였고, 그 기관에서 상담실습을 경험한 학생 중 1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개인 면담을 실시한 후 그 자료를 질적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상담실습은 중독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편견, 중독자들에 대한 편견, 병식의 변화, 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 중독 영역에서의 진로기대, 중독 현장의 현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실습이 남긴 의미는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 중독전문 상담자로서의 태도를 정립하는데 중요한 실물교훈이 되었다. 논의에서는 도출된 주제를 중심으로 중독현장에서의 상담실습의 체계적 운영 방안이 제시 되었다.

■ 중심어 : | 중독연계전공 | 상담실습 | 질적분석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xperience of practitioners who completed the counseling practice in addiction organizations an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effective counseling practice for students in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addiction majors. For this purpose, we provided the counseling training to two addiction treatment institutions and conducted the interviews with 16 students who participated the counseling practice at the institute and then analyzed the data qualitativel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counseling practitioners experienced fear and prejudice against addicts, prejudice against addicts, change of illness, severity and risk of addiction, career expectation in addiction area, and reality of addiction. Also, the significance of the counseling practice was to give an important lesson in establishing the attitude of self - reflection and the identity of addiction counselor. In the discussion, a systematic management plan of counseling practice in the addiction field was suggested based on the derived topic.

■ keyword : | Major Related to Addiction | Counseling Practice | Qualitative Analysis |

I. 서론

오늘날 상담(심리)학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 보다는 높다고 하겠다. 상담(심리)학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도 인정받고 있으며, 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심리, 진로, 학업, 가족, 정신문제 뿐 아니라 폭력, 자살, 중독 등의 문제행동까지도 해결하는 분야로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2000년대를 전후하여 대학교의 학부에 상담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하였고, 현재 '상담'이란 명칭을 사용하는 학과(전공)는 65개, 그 중 4년제는 51개, 2-3년제는 14개가 운영되고 있다[1]. 사이버 대학의 경우에도 33개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2], 최근에는 상담(심리)학과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청소년학, 복지학, 가정학, 예술치료 등에서도 상담 관련 영역을 포함시켜 교육하는 학문분야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3]. 이렇게 높아진 관심은 신문 기사에서도 '사회적으로 심리학을 포함한 인문학 과정에 점차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학사, 상담학, 심리학, 아동학, 청소년학 전공으로 학습 과정의 영역을 넓혔다'고 보도하고 있다[4].

최근 몇 년간 대학의 상담심리학과의 경쟁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상담심리학과의 변함없이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상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만큼 높아졌음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5]. 이와 같은 높은 관심은 미래 사회에 유망한 직업과도 관련이 있겠으나 전공하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사회봉사 측면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하겠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상담심리 전공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이들은 대부분 상담자로서의 꿈을 꾸고 있었으며, 사람을 돕고 싶은 동기, 그리고 상담자로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은 욕구들이 그 동기가 되고 있었다. 따라서 상담(심리)학의 영역은 확대되어 가고, 전공하는 사람들의 자아실현과 사회봉사 측면과도 연관되어 있는 만큼 상담(심리)학에 대한 이론과 상담실습은 상담(심리)학 전공의 주요 과점으로 형성되어 있다[6].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2015)의 연구에서 전국의 상담학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상담영역의 과목수를 연구해 보았더니 상담영역의 과목이 144개 과목, 상담이론 및 접근에 대한 과목이 59개 과목, 상담방

법 및 도구에 대한 과목이 78개 과목, 상담대상의 과목이 83개 과목, 상담내용의 과목이 53개 과목, 상담현장실습의 과목이 12개 과목에 불과하였다. 상담현장실습의 영역에서는 학교상담 영역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교정, 가정 영역은 교과목에 불과하였다[7]. 사실 상담은 몇몇의 연구자들(박재황, 김계현, 노안영, 김진숙, 1996; 오정희, 2007)이 지적한 것처럼 내담자의 성장을 위한 실천학문이기 때문에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이 함께 요구된다[8].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상담(심리)학 전공 대학생들에게 제공하는 학문적 접근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상담이론 과목에 대한 접근이 다수를 이루고, 상담실습 과목은 매우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과 교육과정에서도 상담실습 과목이 매학기 설강되어 있는 것보다 년 1회(1학기, 혹은 2학기), 그것도 학부과정의 3, 4학년 교육과정에서 1회 정도 설강되어 있어 상담에 대한 실습 내용과 과정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의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학부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담실습의 방법 중 간접적인 실습방법으로는 비디오 시청, 사례를 통해 배우기, 상담시연의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며,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상담 리더, 병원이나 재활전문기관 현장에서의 내담자들과의 접촉 등이 있다. 따라서 상담실습과 관련한 어떤 형태의 상담실습 방법이든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배움이 있다. 그런데 일부기관에서는 학부생들이 아직 자신의 정체성 형성이나 사회적 경험의 미숙함으로 사람들에게 상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진하다는 이유로 현장실습을 맡기는 것을 꺼려하는 형편이다. 더군다나 중독관련 전문기관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는 경우이다. 중독관련 전문기관이나 병원에서 간호대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대한 연구를 제외하고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 자료를 찾을 수가 없다. 아직은 중독관련 전문기관에서 중독연계 상담학도들의 활용방안이나 현장실습방안들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는 각종 중독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중독상담전문가의 필요성은 시급한 사항

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대학에서 중독문제를 연계하여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학부생들은 차차 중독관련 전문상담사로 사회에 나갈 인재들이다. 이들이 중독관련 기관에서 상담실습의 경험은 중독문제의 취급과 중독자들에 대한 상담자의 기능과 역할들을 학습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비록 대학에서 중독에 대한 이론적 이해와 접근에 취중하고 있지만 중독현장에서 중독자들을 만나고 그리고 대화하는 경험들은 중독문제를 취급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독연계 전공하는 학생들이 중독관련 전문기관에서 현장 실습에 초점을 두되 연구 목적으로는 첫째, 실습생들이 상담실습 경험으로 얻은 결과는 무엇인가? 둘째, 상담실습 경험은 실습생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가? 셋째, 중독연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공 실습 및 진로 지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등이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중독을 연계하여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거나 복수전공하는 학부 학생으로서 중독관련 2개의 기관에 상담현장 실습을 다녀왔다. 이들은 모두 21명의 학생들로 대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이며, 2주간 아침9시부터 저녁6시까지 온 종일 상담실습 명목으로 중독기관에서 상담실습을 경험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그 중 16명이며, 이들 중 8명은 마약중독 관련 기관(기관 A)에서 상담실습을 경험하였고, 나머지 8명은 알코올 중독 관련 병원(기관 B)에서 상담실습을 경험하였다. 기간은 2016년 1월 18일부터 2016년 2월 19일까지 해당하는 조별로 2주간의 상담실습을 경험하였다. 이들이 경험한 실습의 내용들로는 NA모임 참가, 마약방지 교육영상 제작 참관, 클라이언트와 대화, 클라이언트 병원 면접 동행,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 참여, 봉사활동 참가, 체력단련 프로그램 참여, 관리병동 스텝회의 참여, 병동회진 참여, 중독학

과의 및 특강 참가, HAIS, SOCRATES-K 채점방법 교육 참여, A.A모임 참여, 음악치료 참여, 정직집단 참여, 알코올 중독 예방 12단계 참여, 상담이론(현실치료, 인지행동치료) 특강 참여, 심리검사 방법 및 해석 등이었다.

표 1. 연구 참여자

번호	실습생	전공학과(학년)	기관
1	실습생 A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A
2	실습생 B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B
3	실습생 C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A
4	실습생 D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A
5	실습생 E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A
6	실습생 F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B
7	실습생 G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B
8	실습생 H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A
9	실습생 I	보건관리 및 중독연계전공(3)	기관 B
10	실습생 J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B
11	실습생 K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3)	기관 A
12	실습생 L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3)	기관 B
13	실습생 M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B
14	실습생 N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A
15	실습생 O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4)	기관 B
16	실습생 P	상담심리 및 중독연계전공(3)	기관 A

2.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질적 연구 설계인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9]. 현상학적 방법은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Mounstakas, 1994)을 중시하며, 그 경험을 다루는 것[10]일 뿐만 아니라 연구 대상자들이 겪은 경험의 의미를 가장 잘 가르쳐준다[11]. 사실,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은 Giorgi, Colaizzi, Benner, van Manen, van Kaam, Moustakas 등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발전되었고[12], 상담학을 비롯한 인문사회계열에서 연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조민아(2008)의 연구에서처럼 연구자의 해석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연구 참여자들을 인터뷰하고 녹취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3]. 이는 연구자의 가치판단을 멈추고 참여자들의 의식 속에 존재하는 현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Giorgi(1985)의 현상학적 연구 절차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자는 16명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숫자는 이명선[14], Landridge[15], Creswell[16]

등에 의하면 적지 않은 숫자이다. 이들이 중독기관에서의 실습 후 개인적으로 제출한 실습보고서와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인터뷰는 반 구조화된 인터뷰 질문을 참고하여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그리고 개별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실습생들이 제출한 개인보고서를 토대로 10개의 질문지 초안을 만들었다. 그 후 전문상담사와 상담실습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의 대학원생에게 질문지 내용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 최종적으로 6개의 문항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16명의 실습생들을 만나서 본 연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이들의 동의하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이들과는 수업과 실습을 통해 사전에 라포 형성이 되어 있었고,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자료보존을 위해 녹음을 하였고, 녹음된 내용들은 자료 분석을 위하여 모두 전사되었다. 반 구조화된 인터뷰 내용은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인터뷰 내용

문항	질문
1	현장실습을 하는 동안 자신에게 유익했던 부분과 자신이 힘들어 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2	현장실습의 경험이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3	현장실습 경험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나요?
4	학교수업과 비교해서 현장실습 경험의 필요성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현장실습 경험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6	현장실습 경험으로 졸업 후 중독관련 기관에서 일 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이나 전망을 갖게 되었나요?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상담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는 질적 연구 설계인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축어록을 분석하였다[17]. 그래서 먼저 중독관련 기관에서 상담실습을 경험한 실습생들의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어가면서 연구와 관련된 의미 있는 내용들을 공통의 속성으로 묶고, 그런 다음 범주화 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시한 범주화 작업에서 관련 주제를 정하고 이어서 하위주제들을 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확보를 위해

Eisner(1991)의 제안에 근거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18].

첫째, 인터뷰 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상담실습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2주 동안 현장실습을 성실히 임하고 본 연구 참여에 동의한 실습생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자료 분석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상담심리학 석, 박사 과정에서 질적 연구에 관심 있는 학생 3명에게 인터뷰한 질문의 내용과 표현 등과 축어록의 내용을 주제와 하위 주제 간의 의미 있게 묶는 부호화 과정을 의뢰하였다.

셋째, 대학에서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거나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에게 면담 과정이나 자료에 대한 상호검토 및 논의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여 동료검토(Guba, 1985)를 실시하여[19]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알코올 중독 관련 병원 한 곳과 마약중독 기관 한 곳에서 상담실습을 경험한 중독연계 전공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내용으로써 그 적용성은 이 맥락에서의 실습생들에게 제한한다.

III. 연구 결과

중독관련 기관 A와 기관 B에서 현장실습을 마친 16명의 실습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의미 있는 문단별로 나타나는 소주제를 기록하였다. 즉, 16개의 축어록으로부터 57개의 의미 있는 진술이 도출되었다. 그런 후 범주별로 비슷한 범주들을 묶는 과정을 통하여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이 주요코드별로 범주화 하여 4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다시 범주화하여 2개의 주제로 통합하였다.

표 3. 상담실습에 대한 경험 및 의미

주제	하위 주제	주요코드
상담실습의 경험	준비되지 못한 나	중독자들에 대한 두려움과 경계, 부정적 이미지, 그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경직된 사고, 중독의 심각성과 위험성 그리고 경각심, 병식의 변화, 중독의 예방

	도전의식	진로에 대한 걱정, 중독실무경험, 진로결정에 도움이 됨, 미래 전망이 희망적, 중독영역에서의 보람기대, 중독상담 전문가의 필요성, 중독관련 진학 고려
	새로운 발견	친근감 형성, 상담자로서의 역할, 경청의 원리와 효과, 공감력 발휘, 라포형성, 사람에 대한 이해의 폭 키움, 상담교사의 모델링, 초심을 다지는 계기
실습의 경험이 주는 의미	자기에 대한 각성	가족의 중요성, 의미 있는 사람, 도움을 주는 원동력, 성찰과 관점의 확대, 삶의 재정비, 의미있는 학구열,

1. 상담실습 경험

1.1 준비되지 못한 나

중독관련기관에 상담 현장실습을 나가게 되면서 실습생들은 준비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다. 준비되지 못한 모습 속에는 중독자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중독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 등을 가지고 있었다.

마약 중독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고 편견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좀 거칠거나 난폭할 것이라는 편견이 있었어요(참여자 D).

그동안 알코올 중독은 병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어요 (참여자 F).

처음에는 마약에 중독되어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 경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참여자 H).

제가 생각하는 중독자는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참여자 I).

저에게 중독자들은 그냥 범죄자인줄 알았어요 특히 마약중독자 본인들이 선택하고 책임지지 못할 일을 또 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마약을 하기 위해 폭행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단지 범죄자로 봤는데(참여자 K).

실습을 하면서 진짜 범죄자들이 아니라 환자들이구나 그리고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을 가진 환자들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참여자 K).

제가 그동안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것에 대해서 뭔가 많은 문제가 있구나 하고.. 대인관계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어요(참여자 I)

병식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어요 병으로 인식하고 치료적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참여자 F).

1.2 도전의식

중독현장에서의 상담실습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선호하면서 앞으로 전망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그쪽으로 진로방향을 정하고 싶다는 도전의식을 갖고 있었다. 실습생들의 도전의식은 중독자들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그들을 상담하고 재활시키는 일을 한다면 보람된 삶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실습을 통해 중독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로 결정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었어요(참여자 H).

조금 더 현실성이 생긴 것 같아요 미래에 직업이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조금 더 현장에서 사람들과 만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참여자 G).

국가에서 중독관련 쪽으로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편이기도 하고 중독 관련하여 치료자와 상담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참여자 P).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중독자들의 현재 실정을 통해서 이 분야가 비전이나 전망이 밝을 수 있다고 충분히 사료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독을 벗어나 회복하신 분

들을 보면서 상담사로서의 보람과 사명감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에 중독관련 기관에서 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참여자 J).

AA 모임에 갔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들이 솔직하게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 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리고 알코올 중독은 상담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중독에 대하여 더 배우고 싶어졌어요(참여자 O).

중독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이번 중독기관에서의 실습을 하면서 학교에서 지원하는 미국 THS 중독 기관에 연수나 인턴쉽으로 가고 싶어졌어요. 중독 기관에서 상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기회가 되면 중독관련 대학원이상의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참여자 P).

1.3 새로운 발견

중독기관에서의 상담실습은 실습생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것은 바로 상담의 의미와 상담자의 역할에 대하여 경험하게 된 일이다. 실습생들은 중독자들과의 만남과 대화에서 친근감을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중독자들과 대화를 잘 이끌어 갈 수 있었다. 그리고 상담과정에 필요한 라포 형성, 경청 훈련, 중독자들에 대한 이해 등은 학교에서 경험하지 못한 초보상담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새로운 발견의 경험이었다.

중독자들과 친해져서 격려 해주는 것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이라는 생각을 했죠. 지지를 해 주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그 일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참여자 H).

중독자분들이랑 얘기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분들의 생활도 제게 오픈해 주셨고, 제 생활도 오픈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과 상호작용이 컸었고, 라포 형성이 편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참여자 N).

실습 기간 동안 실제적인 본인들의 경험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자신들의 생활이 어떻게 망가지고, 가족들이 어떻게 떠나가고 하는 상황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다양한 가치관이나 생각들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참여자 I).

상담사분들이 환자를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정직하고 겸손을 되게 강조했는데.. 치료자라는 명목 하에 내가 그들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마음으로 반성해보고, 뭔가 초심을 다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참여자 O).

중독자와의 교류도 할 수 있고요. 사례를 계속 접한다는 점도 유익했고, 집단상담 안에서 그분들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담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은 현장에서 배우는 실제적인 교육이었어요(참여자 G).

최대함 공감표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독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약을 하고 싶고, 그 약 때문에 불안감도 같이 오고, 가족을 잃었다는 상실감도 크고, 무능력감도 엄청 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청하고 위로의 말을 해드렸어요(참여자 P).

저에게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지레짐작하지 말자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자’ 이런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어요(참여자 N).

2. 상담실습의 경험이 주는 의미

2.1 자기에 대한 각성

현장실습에서 상담실습의 경험이 주는 유일한 의미는 자기에 대하여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고, 새로운 다짐으로 생활하게 되는 동기부여의 경험이 되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저의 실수로 남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남들이 내게서 등 돌린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그

때 우리 가족이 내편이 되어주었는데, 거기계신 분들은 가족한테까지 버려진 것 같은, 나를 지지해 주는 내편이 되어주는 존재가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참여자 D).

그분들에게 내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함도 느꼈고, 학교 다니면서는 그런 느낌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데 실습을 경험하면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내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참여자 P).

평소 서비스직에 종사하고 싶었던 저에게는 제가 그들에게 마음의 휴식처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신체적, 심리적 휴식과 건강이 필요한 그들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은 저에게도 자아존중감을 높여주었습니다(참여자 E).

재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환자들도 이 안에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 이렇게 삶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저도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M).

중독기관에서의 실습에서 실습생들이 겪은 경험들은 자신의 삶의 동기부여가 되는 경험이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중독분야에 큰 관심을 갖게 되면서 중독에 대한 배움의 의지와 학구열을 갖게 해주었다. 더 나아가서 현장 실습의 경험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전공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담에 대한 공부를 4년 동안 해 왔지만 직접 현장실습을 나가는 일은 수련되지 않은 학부생이기에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학부생으로서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이

렇게 실무에 투입되기란 전무후무하다고 생각되었고, 중독분야에 관한 굉장한 흥미를 가져다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참여자 E).

병원 쪽에는 취업할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막상 병원 실습을 해보니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마다 병동 회의, 간호사님의 브리핑, 의학용어에 대한 학습, 그리고 약에 대한 정보 등 혼자서 기록해 두었다가 찾아보면서 학구열에 불타서 혼자 너무 좋아했어요(참여자 F).

학구열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실무에서 일을 하시는 상담사 선생님들을 보면서 실제로 중독자들을 대하고 일을 하려면 상담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참여자 J).

특히 내 삶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다. 또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M).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상담(심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중 중독 연계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중독영역의 현장 실습을 경험하게 하였고, 그 현장실습에 대한 경험과 그 경험이 주는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를 하였다.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와 결론을 맺어 보고자 한다.

첫째, 상담실습의 경험은 '준비되지 못한 나'를 발견하게 하였다.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는 중독자들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었다. 해와 편견은 그 대상이 중독자라는 특수성도 있겠지만 송미경(2014)의 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실습생들이 학부생들이고 학부 과정에서 아직 직접 내담자를 만나서 실습을 할 수 있는 제한된[20] 상황과 중독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그들에 대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고, 오해와 편견 때문에 실습생들은 실습 초기에 중독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두려움과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두려움과 경계심은 최은실(2002)의 연구처럼 실습생들로 하여금 상태 불안을 갖게 하여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중독자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어야 하나? 혹은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의 걱정들을[21] '준비되지 못한 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육과정에서 중독자들에 대한 경험이나 접촉기회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는 결과와도 관계된다[22]고 하겠다.

둘째, 마약 중독 기관과 알코올 중독 기관에서의 실습 경험은 중독을 연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앞으로 중독관련 전문상담자가 되기 위한 '도전의식'을 갖게 하였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마약이나 주요 중독에 관한 상담전문가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실습생들은 중독관련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 마약 중독 상담전문가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상담전문가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중독기관에서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중독상담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대학원 진학의 부담감 등은 실습생들이 극복해야 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였지만 앞으로 중독과 관련되는 국가의 정책 사업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 중독분야에서의 마약 혹은 알코올 비롯한 중독전문상담가로 꿈을 키우고 싶다는 이들의 의지는 중독관련 영역의 도전의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은 '도전 의식'은 중독관련 영역의 전문가의 부족한 현실[23][24]과 중독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항[25]에서는 더욱 절실하다.

셋째, 실습생들이 현장실습 경험에서 갖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은 '새로운 발견'이었다. 그 '새로운 발견'은 상담의 기능과 상담자의 역할이다. 비록 실습생들은 Lacross(1980)가 언급한 상담자의 전문성, Pope와 Kline(1999)가 주장한 상담자의 정서 안정성, 공감, 유연성, 진실성, 사람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Albert(1997)가 언급한 작업 동맹을 형성할 수 있는 능력[26]은 매우 부족하지만 초보상담자의 역할들을 경험하는 기회였다. 마약 및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의 아픈 이야기, 가족이야기, 실패의 이야기들을 실습생들에게 한다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실습생들의 무비판적인 태도, 경청과 수용이 반복되면서 가능하였다. 그리고 실습생들은 실

습하는 과정에서 중독자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에 대한 이해가 거듭되면서 공감의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Kinney와 Bergen(1982)의 연구에서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27]. 짧은 기간 동안 겪은 실습생들의 상담적 경험은 분명 초보적인 행위라 할 수 있겠으나 실습생들의 입장에선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상담적 경험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한층 성장시키는 경험이었다고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넷째, 상담실습의 경험이 주는 유일한 의미로는 '자기에 대한 각성'이다. 실습생들은 실습 경험이 자신을 성찰하고 앞으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데 동기부여가 되었다. 자기성찰(reflection)은 상담 전문성 발달에 핵심적인 요소이다[32]. 실습생들에게 있어서 중독기관에서 현장중심의 상담실습은 상담형식과는 무관하게 현장에서 중독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대화하고 관계 맺는 경험 자체가 낭만적이거나 쉬운 일이 결코 아님을 알게 되면서 실습생 스스로는 학부학생에 불과하고 사회경험도 거의 없는 20대의 대학생에 불과하지만 중독기관에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경험이 자신을 성찰하거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나아가서 자아 존중감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인간적인 성장의 경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상담자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 Skovholt와 Ronnestad(1992)의 관점을 뒷받침하고 있다[33]. 인간적인 성장은 학교에서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들을 접하거나 다양한 관점을 접하는 상황과 경험이 자기 생각의 변화를 갖게 하는 것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는 바로 상담의 결과와 관계없이 어려운 경험 자체를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험으로 지각한다는 김길문과 정남은(2004)의 연구[34]와 맥을 같이 하고, 안민정 외의 연구[35]에서도 상담실습의 경험은 자아성장의 계기,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 삶의 의미를 고찰하는 등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결과를 말해주고 있다.

이상으로 중독연계 학생들이 중독관련 기관에서 실습한 경험의 결과와 그 의미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학생들이 실습한 중독관련 실습 내용이 중독 기관마다

제한되어 있고, 실습기간도 길지 않은 관계로 학생들이 경험한 경험의 결과와 그 경험의 의미가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을 것이며, 실습 경험의 결과와 그 실습경험의 의미를 중독연계 전공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반화 시키기에는 분명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독연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중독관련 기관에서의 실습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중독관련 기관과 대학에서의 몇 가지 협력과 보완이 요구된다.

하나, 주요 중독(마약, 알코올, 인터넷, 도박 등)의 전문기관과 협력체계(MOU)를 맺고 그 기관과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그리고 전문화된 상담현장실습을 진행한다. 둘, 방학을 활용하여 3, 4학년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인턴십 과정으로 진행한다. 셋, 중독에 관한 이론 과목과 실습과목을 연계하여 이론과 실습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조정한다.

이와 같은 요구들이 추진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중독연계 학생들이 다양한 중독관련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전문적인 상담실습이 진행될 것이며, 학교에서 보다는 훨씬 생동감 있는 배움의 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중독연계 학생들의 자기발전, 전문상담가가 되기 위한 소명감 그리고 진로설정에도 중요한 몫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 “학부 상담학과 교육과정 분석연구,” 상담학연구, 제16권, 제4호, pp.301-319, 2015.
 [2] <http://ipsi.kcce.or.kr>
<http://www.cuinfo.net/home/index.main.action>
 [3]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 “학부 상담학과 교육과정 분석연구,” 상담학연구, 제16권, 제4호, pp.301-319, 2015b.
 [4] 헤럴더경제, 2015.2.9.
 [5] http://ipsi.syu.ac.kr/2016_syu/pages/index.asp=14&b=B_1_7&cate=정시
 [6] 오정희, *초보상담자들의 첫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7.

[7] 조남정, 이미현, 김인규, “학부 상담학과 교육과정 분석연구,” 상담학연구, 제16권, 제4호, pp.301-319, 2015.
 [8] 오정희, *초보상담자들의 첫 상담경험에 대한 질적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9] A. Giorgi(Ed.),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Pittsburgh, PA: Duquesne University Press. 1985.
 [10] J. W. Creswell, W. E. Hanson, V. L. Plano Clark, and A. Morales, “Qualitative Research Designs: Selection and Implementatio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Vol.35, No.2, pp.236-264, 2007.
 [11] 박순 외 10명, *상담학 질적연구방법론 사례집*, 시그마프레스, 51, 2016.
 [12] 이상학, *남성 초심상담자의 상담수련경험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13] 조민아,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아동 놀이치료의 현상학적 연구: 치료자-내담자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4] 이명선, *질적연구를 통한 간호실무의 이해*, 서울: 군자출판사, 2005.
 [15] D. Langdrige, *Phenomenological Psychology: Theory, Research and Method*, Essex: England. Pearson Education Limited, 2007.
 [16] J. W. Creswell,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age, 2012.
 [17]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i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W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48-71, 1978.
 [18] E. W. Eisner, *The enlightened eye: Qualitative inquiry and the enhancement of educational practice*, New York: Macmillan, 1992.
 [19] E. G. Guba, *The alternative paradigm dialog in*

E. G. Guba (Ed), *The paradigm dialog*, Newbury Park, CA: sage, 1985.

- [20] 송미경, “대학생의 상담실습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0호, pp.337-361, 2014.
- [21] 최은실, *초보 상담자의 반응 부담이 내담자 상태 알아차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논문, 2002.
- [22] J. Kinney, B. J. Bergen, and T. R. P. Price, “A perspective on medical students’ perceptions of alcoholics and alcoholism,”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Vol.43, No.5, pp.488-496, 1982.
- [23] 손기욱, *중독연구에 대한 비판적 평가 :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 [24] 김우준, “4대 중독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3권, 제2호, 통권6호, pp.74-88, 2013.
- [25] 이해국, 이보혜, “4대 중독 원인 및 중독 예방 정책,” *보건복지포럼*, pp.30-42, 2013.
- [26] 김길문, 정남운, “초보상담자가 상담회기 내에 경험한 어려움과 대처과정: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16권, 제1호, pp.1-20, 2004.
- [27] 안민정, 황윤영, 주민선, “간호대학생의 알코올 중독 환자 간호 실습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제20권, 제3호, pp.362-371, 2014.

저 자 소 개

박 중 환(Jong-Hwan Park)

정회원



- 1999년 2월 : 삼육대학교 신학과 (문학사)
- 200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교육(교육학석사)
- 2008년 2월 : 백석대학교 기독교 상담대학원(상담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삼육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임 교원

<관심분야> : 상처받은 내면아이 상담과 심리치료